



10년

새로운 마을 연금 모델 화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음 10월 8일) 제313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에서도 이태원 참사 추모 발걸음

“믿기지 않는 비극, 두 번 다시 없기를”

전북도청 공연장 1층서 합동분향소 마련
분향소 찾은 도민들 “희생자 명복 빌어”
김 지사·도의회 의원들도 분향소 찾아 조문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공연장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도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에 전북에서도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전북도청 공연장 1층에 마련됐다. 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해 도민들이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1시경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1월과 12월에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장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같은 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전북도청 1층 공연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고 슬픔을 겪고 계실 많은 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부상자들도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업무 중 시간을 내 추모를 하러 온 도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다. 조문객 A씨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믿기지 않는 참사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문객인 B씨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다”며 “유족분들도

하루 빨리 마음을 추스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전북도민 1명이 숨졌다. 도내 연고가 있는 타

지 거주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김경수 기자

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진료비 절감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39억 ↓
울 86개 요양병원 대상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사례관리를 추진해 전년 대비 의료급여 진료비 39억원을 절감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8만2,258명 중 2,000여 명 정도가 장기입원하고 있으며, 고통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체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관리하고자 올해 전북지역 86개의 요양병원에 의료급여관리사 44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입원자의 건강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제도를 안내했다. 외래진료가 가능한 입원자도 선별하고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연계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했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재정 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인식변화를 도모했다. 요양병원 의료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경수 기자

도, 시외버스 요금 인상 추진

전북도가 시외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은 139개로 일반·직행형 107개, 우등 30개, 고속 2개 노선이다. 인상률은 직행형 5.0%, 고속형 5.0%로 국토교통부의 최저인원 및 요율 인상에 따른 인상으로 풀이된다. 각 노선별 인상 후 금액은 전주~익산은 3,300원에서 3,500원, 김제 구간은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오른다. 전주~군산은 6,000원에서 6,300원, 전주~서울(남부)의 경우 1만3,800원에서 1만4,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9년 이후 3년만이며, 약 10일간의 요금인상 계획 안내 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여야,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 국감 내달 8일 순연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날 31일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의 이태원 참사 수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순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전화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수석이 언론에 공지한 여야 원내수석간 합의에 따르면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는 다음달 8일 진행된다. 운영위 예산심사도 다음달인 9일 오전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대통령 비서실 순으로 이뤄진다. /뉴시스

희생자·유가족분께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마무리

도,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과학기술 장비 활용 212곳 점검
현지시정·보수보강 필요 295곳... 예산 신속 확보 개선 조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59일만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동주택, 문화재, 농어촌민박, 공사장 등 점검대상 시설물 7개 분야 1,529개소에 대한 안전점

검을 마무리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살피는 예방활동이다.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및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00여 명이 참여해 모든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212개소를 과학기술장비 등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및 교각 부위지붕균열, 구조물 접합 부위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 폭을 넓혀 시각장애 해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안전점검 결과 295개소가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단풍명소 내장산

빨강, 주황, 노랑...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잎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랑하는 이와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며
내장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 가을날...



#내장산 우화정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내장산 단풍터널